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1년 12월

선교편지 제 148호



복된 성탄을 시므온과 만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희망찬 새해에도 한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박인호, 이연지 드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 34:3)**



디고스 예일 교회에 가면 두 마리의 강아지가 제일 먼저 저희를 반겨줍니다. 자동차가 아직 교회 마당에 도착하기도 전인데, 마치 이산 가족이 수년만에 다시 만나는 것처럼 요란하게 뛰고 짖으면서 환영 행사를 해 줍니다. 두 마리의 중에 한 마리는 교회에서 키운지 꽤 오래 되었고, 두 번째 강아지는 최근에 교인이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의 이름은 부르기도 재미있는 '띠용'입니다. 이름을 한번만 불러도 될 것을 '띠용~, 띠용~' 하고 자꾸 부르게 되는 매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띠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게 물어 보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붙여준 이름도 아닌데, '띠용'의 의미를 제게 물어 온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그 '띠용'이란 이름은 당시 현지 tv에서 인기리에 상영 중인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꽤 사랑을 받은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을 강아지한테 붙여 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태영' 또는 '태용' 인 것 같은데, 이들에게 들리는 대로 '띠용'이란 이름을 친근하게 강아지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오래 전에 저희들도 강아지 이름을 '메리' 나 '쫑 (존)'이라고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물도 잘 나오지 않지만, tv도 시청이 어려울 정도로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tv 보기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현지 주민들의 tv 사랑은 매우 대단하여 집집마다 안테나를 높이 설치하고 tv를 시청 합니다. 특정 시간이 되면 동일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거의 동시에 집집마다 웃음 소리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곤 할 정도입니다. 이곳에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한국 프로그램이 현지 언어로 tv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정도로 얼마나 인기가 많은 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 가면 흥겨운 분위기를 사로 잡고 있는 한국 가요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지인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현지 뉴스에는 한국 연예인의 소식이 마치 급박한 일처럼 신속하게 전달 되고 있어서, 현지인들도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과 한국 가수들의 근황을 꿰차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곳에서는 한국이 문화 강국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소위 K-드라마, K-영화, K-가요가 이곳 생활에 매우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다른 점은 K 드라마나 가요가 아니라 한국에서 불리어 지고 있는 복음성가와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하는 열망입니다. 악보를 통해 음악을 배우는 우리와 달리, 듣는 것 만으로도 음악을 깨우치는 이들의 선천적인 재능으로 인해서, 한국의 좋은 찬양들을 쉽게 찾아내고 따라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가사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와 제 아내가 옆에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어 찬양 가사를 음율에 맞추어 영어나 현지어로 번역을 해 주어야 하고, 발음도 교정을 해 주어야 한 곡의 K-찬양이 빛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익힌 K-찬양이 한 곡씩 늘어나며, 이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독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곳 선교지에서 주님을 믿기 시작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 땅을 지배하는 세상 풍속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 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 18:3-4)**

 11월 셋째 주일에 감격적인 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이켜 보면,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건, 사고가 많았고, 고통과 아픔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덮고도 남을 감사로 풍성히 채워 주셨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상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50세도 되지 않은 분의 장례 예배를 드려야 했고, 12세 여자 아이가 \$4 정도의 돈을 미끼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른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가정이 흩어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들을 지나 온 한 해였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뽑히고 쓰러질 정도의 심한 비바람과 돌풍으로 교회 근처에 심겨진 커다란 야자수 나무가 교회 지붕으로 덮쳤습니다. 건축한지 2년도 되지 않은 아팔라야 예일 교회의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디고스 예일 교회는 음향 장비와 악기가 모두 도난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고 보니, 디고스 예일교회에서 실시한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했던 15살, 14살, 9살의 마을 아이들로서 이미 교회 물품들을 팔아 치운 후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교회 면적에 따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과 나이 제한으로 교회 문을 활짝 열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방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많다면서, 몇몇 교인들은 우리 교회도 방역 규정을 무시하고 그전과 같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자고 저에게 요청을 하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나이 규정 상 참석할 수 없는 분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 해 달라는 연락이 올 때, 머뭇거리는 제 자신이 너무 비겁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 주시고, 가족과 생업과 학업을 지켜 주신 은혜도 크지만, 특별히 온 교인들이 동일하게 경험한 것은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며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년과 다르게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교인들이 많아졌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인들을 서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지는 특별 찬양, 간증, 연극 등을 열심히 준비하였고, 예배 이후 친교를 위해 이곳의 최대 명절 음식인 '레촌 바보이' (통돼지 구이)와 맛있는 음식들을 토요일 저녁 밤을 세워가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일에 디고스 예일 교회와 아팔라야 예일 교회에서 드리진 감사 예배는 온 교우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와 성도' 들을 다시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발표한 한 성도의 간증)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이 조금씩 이해되고, 감동을 주시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도전 받고 변화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위를 보며 채워지지 않는 욕심 속에서 살아왔던 저에게 이웃과 아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쁠 때 뿐만 아니고 슬플 때 더 힘이 되어주는 교회, 나 혼자 아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4-25)**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